허술한 강진군

명문대 졸업 말만 듣고 개인 미술관 추진

허위 밝혀지자 '없던일로' … 주민들 비난

강진군이 학력을 위조한 채 지역에서 활동해온 동양화가 M모(66)씨에 대한 치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M씨의 개인미술관 건립을 검토했다가 전면백지화해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강진군과 강진 미술인 등에 따르면 황해도 출신인 M씨는 10여년 전 강진에 정착,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M씨는 그동안 강진문화원 부원장직 등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프로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1967년에 졸업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보가 지난달 30일 홍익대에 문의한 결과, 홍익대측은 67년 졸업생 명단은 물론 입학생 명단에도 M씨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

M씨의 이같은 학력위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미술인들은 물론 군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강진군은 이같은 실정을 자세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최근까지 M씨의 개인미술관 건립을 검토해 와 군민들은 군의 허술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지난 2월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M 화백의 그림을 전시할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군 실무팀은 성전면 일대에 미술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마련과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력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은 개인미술관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M화백의 경우 지역에서 나름대로 신망을 받아왔기 때문에 학력문제 등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면서 "지역미술인들과 출향작가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반대주장이 많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진미협 회원 J모(57)씨는 "개인의 도덕성을 탓하기에 앞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개인미술관을 지어준다고 앞장선 군 행정에 실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학력위조 사실에 대해 당사자인 M씨는 "홍익대 미술연구원을 수시로 다녔다"며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슬로시티 연석회의 전라남도는 7일 오후 도청 정철실에서 슬로시티추진협의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인증된 완도 청산도, 담양 창평, 신안 증도, 장흥 유치 등 4곳의 슬로시티를 '대한민국 Only one 녹색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수협 인력 7.5% 줄인다

2011년까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63명인 인력을 2011년까지 2천926명으로 237명(7.5%) 줄이는 등 수협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민관 합동기구인 수협개혁위원회가 2월 제시한 수협 개혁안을 수용한 것이다.

수협은 이에 따라 인원을 공적자금 투입 당시(2001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경제사업(수산물 유통) 부문의 수산물 판매장인 바다마트와 바다회상은 2010년까지 자회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신용사업(금융)도 9월까지 외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가능한 한 2010년부터 자회사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광주·전남 116명 드러나

市·道 이달부터 해당 공무원 징계 착수

광주·전남지역에서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직자가 광주 9명, 전남 107명 등 총 11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광주시 공무원은 9명(본청), 전남도내 공무원은 107명(본청 9명, 시·군 98명)이다.

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시에서는 서기관 1명을 포함해 5급 사무관 1명, 기능직 7명 등 총 9명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직급별로 4급 2명, 부교수 2명, 5급 16명, 6급 이하 87명 등이며 여수 8명, 순천 5명, 나주 8명, 광양 21명, 해남 7명 등이다. 전체 수령 액수는 8천600여만원이다.

시·도는 이들 부당수령자에 대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3년간 직불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한국 50위

세이브더칠드런 발표

어머니로서 살기 좋은 나라를 평가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58개국 가운데 50위에 머물렀다.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158개국을 조사해 7일 발표한 '2009년 어머니 보고서'를 통해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이 5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00년부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의료와 경제수준, 영아사망률, 여성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등 각종 지표를 토대로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어머니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 사망률은 6천100명 중 1명이며 의료전문가에 의한 출산율은 100%, 피임도구 사용률은 67%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첫 조사에서 21위(106개국)를 차지한 뒤 2001년 22위(94개국), 2003년 21위(117개국), 2004년 16위(119개국)를 기록했지만 2007년 46위(140개국), 2008년 49위(146개국)로 순위가 급격히 떨어졌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일본이 34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중국은 57위로 처졌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黨대신 치닥거리는 않겠다

호남광역경제권 지원단장

전북대 남기석 교수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장에 남기석(56·전북대 환경화학공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7일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분야에서 태양광과 풍력, 하이브리드카, LED(발광다이오드) 등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호남광역경제권의 사업을 총괄하는 지원단장에 남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는 올해 한 프로젝트당 80억원씩 모두 320억원이 투입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만 관통 고속도 공사 중지 요청

순천시·도의회 이어 시민단체도 가세

순천시와 전남도의회가 순천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순천만 경관과 생태계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사 중지 요청을 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순천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만관통고속도로 반대 순천 시민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 "현재 진행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세계적인 습지인 순천만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과 생태적 연계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생태계 환경 보전을 위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 시민행동은 "특히 고속도로 인근에는 멸종위기 1급인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호)와 흑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데도 고속도로 공사 시작 당시 가축에 미치는 소음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시민과 함께 공사중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1년 완공 목표로 지난해 공사에 들어간 목포~광양고속도로(106㎞)의 순천 구간(11공구·5.67㎞) 중 3.5㎞ 구간이 순천만 앞을 통과하는데, 현재 공정률이 35%에 달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도로공사 측 입장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재난위험 경보 사이렌 16년만에 교체

홍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의 발생이나 위험을 예고하는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소리가 16년만에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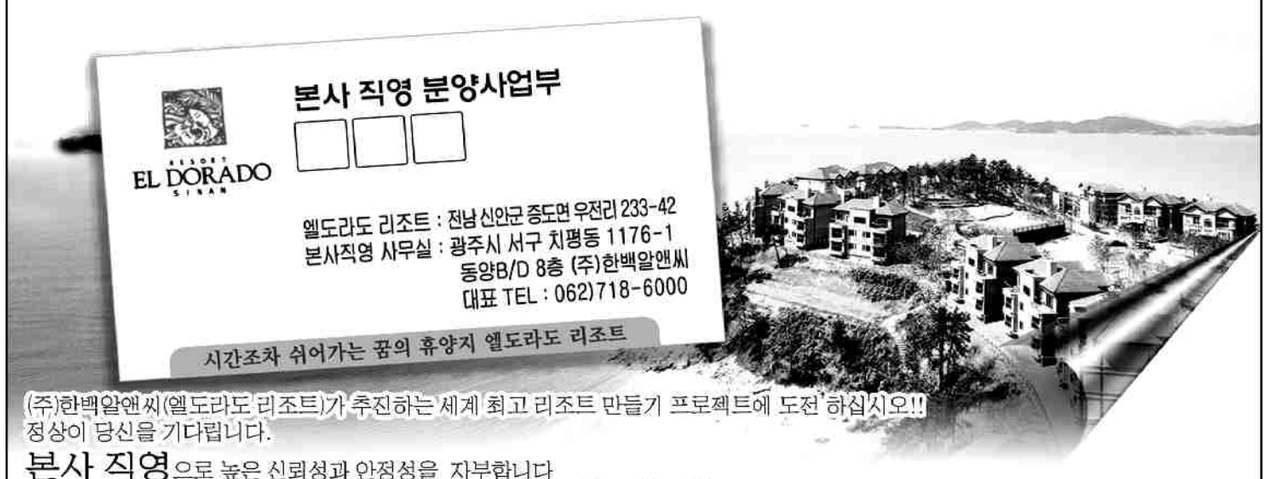
광주시는 지난 1993년 채택된 기존 재난위험경보음을 변경해 2초 상승, 2초 하강음으로 3분간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재난위험경보음(15초 상승, 5초 하강, 3분간)은 민방공 공습경보음(5초상승, 3초하강, 3분간)과 사이렌 소리가 비슷해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4월까지 시내 42곳의 민방위경보사이렌의 재난위험경보음을 변경을 완료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변경된 재난위험경보음을 발령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변경된 재난위험경보음으로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하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시 위기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엘도라도 리조트 명함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능력과 열정을 가진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한백알앤씨(엘도라도 리조트)가 추진하는 세계 최고 리조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전 하십시오!!
정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본사 직영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자부합니다

모집요강

- 모집부문 분양사업부문 ○○명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AM 10:00~PM 5:00)
- 지원자격 30세~, 남 · 여(영업 경력자, 주부사원 환영)
- 급 여 기본급+일비+인센티브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내사 방문 접수
- 접수처 및 근무처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6-1 동양 B/D 8층 (주)한백알앤씨 본사(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 문의 : ☎ 062)718-6000

건설(토목)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분 및 지원자격

구 분	인 원		응시자격	비 고
기술직	공무	00명	대졸이상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공사	00명	초대졸이상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관리직	관리	00명	대졸이상	상경계열 우대

2. 제출기한
~5월 10일한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1차심사 : 서류전형
- 2차심사 : 면접(1차합격자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경력자는 경력위주)

4. 제출처(메일접수)
- e-mail : dy0900@empal.com
- 인사담당 문의처 : 02-556-0900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대양토건

정 정 공 고

본보 2009년 5월 7일자에 게재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결공시중 검사 신흥희를 판사 최형표로 정정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8일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천일전기(이하"갑"이라한다)와 주식회사 청강전력(이하"을"이라한다)은 2009년 05월 07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소방시설공사업(면허번호:제2007-다68호)의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합병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에 대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므로 이에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다 음-

1. 합도(존속, 합병)대상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제 2007-다68호
2. 을도(분할, 합병) 예정일 : 2009년 06월 09일
3. 이해관계인의 와인제출
(1)기 간 : 2009년 05월 08일~ 2009년 06월 09일
(2)제출처 : 합도자 또는 합주자
"갑" 상 호 : (주)천일전기
대표이사 : 정 경 일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9-19
전 화 : 062-951-1823
"을" 상 호 : (주)청강전력
대표이사 : 장 기 순
주 소 : 전남 나주시 동함면 와우리 1번지 (동함농공단지내)
전 화 : 062-603-0433

주식회사 청강전력
주식회사 천일전기

자본감소및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09년 5월 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350,000,000원 중 금 300,000,000원을 감소하여 금 5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유상소각 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삼정산업개발 주식회사
광주 북구 삼각동 492-10 2층
대표이사 장 태 원